

장 누벨 작품 공간에 나타나는 맥락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ntextual special quality in Jean Nouvel's projects

주저자 : 이 찬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실내디자인과 부교수

Lee chan

Kookmin university

공동저자 : 윤현숙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석사과정

Yun hyun sook

Kookmin university

1. 서론

- 1-1. 연구배경 및 목적
-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맥락주의의 이론과 특징

- 2-1. 맥락주의의 의미
- 2-2. 맥락적 사고의 배경
- 2-3. 건축적 맥락과 특징
 - 2-3-1. 프로그램적 측면
 - 2-3-2. 시각적 측면
 - 2-3-3. 경제적 측면

3. 장 누벨의 공간 개념과 맥락적 특성

- 3-1. 공간개념의 배경
 - 3-1-1. 외부성
 - 3-1-2. 건축의 특이성
 - 3-1-3. 잠재적 현실성
 - 3-1-4. 소결
- 3-2. 맥락적 표현 특성
 - 3-2-1. 위상기하학
 - 3-2-2. 표면의 물질성
 - 3-2-3. 투명성
- 3-3. 소결

4. 작품 사례 분석

5. 결론

참고문헌

(要約)

본 연구는 우리의 현대 건축이 극복해야 할 과제인 지역적, 역사적 문제점의 해결방안으로써 맥락적 공간 표현을 하나의 가능성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더니즘 건축이 역사적, 장소적 맥락의 특수성을 거부하고 익명적인 공공성만을 지향하였다면, 이후의 포스트모던 건축, 지역주의건축 등은 다양한 역사적, 환경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단절되었던 맥락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맥락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여 건축의 소재로만 차용하였을 뿐, 끊임없이 변화하는 맥락을 수용해내지 못했다. 이러한 현대의 변화하는 맥락성

에 대응 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건축가로 장 누벨을 선정하여 그의 건축공간에서 맥락적 표현 특성을 파악하고 작품을 사례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우선 맥락주의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건축적 맥락의 특징을 장 누벨의 맥락적 공간 표현과 비교하여 그 관계성을 찾았고, 위상기하학적 조작, 표면의 물질성, 투명성을 통하여 장 누벨이 단지 건축과 공간 내부에만 머물지 않고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독창적인 해석과 표현방식을 통해 맥락성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 맥락성이란 임의적으로 추출되어 공간화 및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흐르고 변화하는 유동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임을 시사해주고 있다.

(주제어)

장 누벨, 맥락주의, 위상기하학, 표면의 물질성, 투명성

(Abstract)

This research proposes contextual space expression as a possibility of solution methods for local and historical issues, the matters that our contemporary architecture has to overcome. When modernistic architecture aimed for anonymous public interests denying the characteristics in historical and spacial contexts, postmodern architecture and regional architecture, etc have been striving to revive discontinued contextual meanings using various historical and environmental elements. While such attempts only borrowed architectural materials by superficially understanding the context, they could not comprehend ceaselessly changing contexts sufficiently. Choosing Jean Nouvel as one of the architects that can explain spatial plan to properly respond to such ever-changing, contemporary contexts, the researcher intended to understand his line of expressional characteristics of his architectural space and analyze his works as examples.

(Keywords)

Jean Nouvel, Contextual, Topology, Materiality of surface, Transparency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0세기 모더니즘 건축이 역사적, 장소적 맥락의 특수성을 거부하고 익명적인 공공성만을 지향하였다면, 이후의 포스트모던 건축, 지역주의건축 등은 다양한 역사적, 환경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단절되었던 맥락의 의미를 되살리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들은 맥락을 피상적으로만 이해하여 건축의 소재로만 차용하였을 뿐, 끊임없이 변화하는 맥락을 수용해내지 못했다. 그것은 맥락이 임의적으로 추출되어 공간화 및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흐르고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적용되어왔던 기존 맥락적 접근방식에 대한 보완으로서, 맥락과 설계행위를 동시에 고려하기 위해 맥락의 상황을 시각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험의 대상으로, 변화하는 맥락성에 대응 할 수 있는 공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는 건축가로 장 누벨을 선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맥락을 수용하여 다시 새로운 맥락을 제시하는 가능성을 만들고, 주변 환경과 괴리되어 있던 도시 환경 내에서 연계성을 찾아주며, 새로운 맥락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에 연구의 가치와 의의를 찾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장 누벨의 공간 어휘들이 하이테크, 비물성, 불확정성 등 다양하게 도출되고 있으나 그 중, 맥락적 특성을 드러내는 개념과 공간 표현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 건축에서의 일반적 맥락주의의 이론을 고찰하고, 3장에서는 장 누벨의 공간에 대한 사고를 통해 그의 맥락적 공간 개념과 특성을 파악하여 2장에서 고찰된 건축적 맥락의 일반적 이론을 바탕으로 장 누벨의 맥락적 특성의 분석들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장 누벨의 작품에 나타난 맥락적 표현 특성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분석의 기준은 장 누벨의 계획안 및 실현화된 모든 작품 중 맥락적으로 표현된 작품을 중심으로 하여 최종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2. 맥락주의의 이론과 특징

2-1. 맥락의 의미

맥락(脈絡, Context)의 사전적 정의는 ①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 ②문맥, (문장의) 전후 관계;(어떤 일의) 정황, 배경, 환경이다.

이러한 맥락의 개념은 건축 자체에 국한된 개념이라기보다 철학 분야, 언어학 및 문학 분야, 심리학 분야에서 사용되면서 건축에 유입되어 함께 사용되고 있다.¹⁾ 따라서, 건축과 관계하는 맥락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 타 분야에서 사용되는 맥락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처럼 맥락의 의미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각각 분리해서 말하기는 곤란하다. 맥락성은 어떤 구조든지 상대적 관계 안에서, 필요에 의해 독립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면서도 언제나 그 주위 환경과의 상호교환, 접근 관계 안에 흡수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2-2. 맥락적 사고의 배경

맥락주의란 뚜렷하게 이론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도시와 건축 공간 디자인에 있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도시 구성은 물론 건축 공간 디자인에 있어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졌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지는 맥락주의란 근대 이후에 새롭게 인식되어지기 시작한 역사성에 바탕을 둔 사상을 말한다.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맥락주의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근대건축의 한계를 원인으로 들 수 있다. 근대 건축가들은 전통이나 풍토 등 지역적인 특징성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건축을 보편적이고 추상적인 방법으로 다루었다. 그들은 현재와 과거와의 관계를 급진적인 대립적 관계로 보았으며 과거의 것을 거부하고 그 시점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공간에 있어서 전통과 장소성의 무시, 역사성과 지역성의 결여라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두 번째, 도시나 건축 공간에 있어서 역사성의 인식이다. 모더니즘 이후 도시공간은 그들이 가진 역사적 배경이나 공간적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독특한 지역성을 상실한 채 어디서나 똑같은 모습으로 변해갔다.

이러한 결과는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역사나 관습과 조화될 수 있는 공간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1) 강현주. (2002). 건축적 중재를 적용한 맥락적 설계방법. (pp 8). 동명대석론

하였으며, 자신들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문화적 역사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였다. 포스트모더니즘에서는 역사와 환경을 통해 개별적 건축이 아닌 사회적, 문화적 연속선상에서 도시와 건축을 바라보려는 거시적 접근태도를 점차 보이며 맥락주의가 중요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포스트모던에 있어서 과거 전통과의 연계성 및 과학적이고 유평파적인 사고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 도출은 오히려 건축공간과 도시가 서로 융합되고 연속된 경험으로서의 일체화를 추구 한다기보다는 이질적 요소간의 차이를 발생시켜 이에 대한 반발 또한 도시공간의 맥락을 중요시하게 되는 현상을 나타나게 하였다.

2-3. 건축적 맥락과 특징

시간과 공간이란 항상 동시에 작용하고 건축에 있어서는 중요한 배경이 되어 왔으며, 맥락주의에 있어서는 더욱 강하게 작용한다. 앞서 맥락적 사고의 배경에서 언급하였듯이 건축에서 맥락의 적용은 독단적 개체로 생각했던 건축을 비판하면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도시는 물질적 재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체험에 의해 변형되어가는 문화와 역사로 구성되어가는 것으로, 도시와 건축공간에서 적용되었던 맥락은 시각적 연속뿐 아니라 문화적 연속까지 추구한다는 생각아래 무질서한 도시공간을 재구성하는 개념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레이스미스에 의하면 건축적 맥락이란 ‘대지 자체에 대한 은유적 대응에서부터 시각적 조화를 위한 색, 재료의 사용과 역사적 전통에 대응한 유추와 대지 내 동선의 흐름, 장소에 대한 기억, 공동체의 연속성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라고 언급하고 있다.²⁾ 즉 어떠한 구조이던지 상대적인 관계 안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언제나 그 주위환경과의 관계성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상적인 맥락성을 공간화 시키는 데는 주로 내부와 외부와의 관계성, 혹은 내부와 내부의 관계성이 주요 해결점으로 작용된다.

건축적 맥락의 성향을 한 가지 관점 하에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거나 평가하는 일은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것은 현대건축의 다원화된 원인이 근대건축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으로부터 출발함으로써 평가의 기준을 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맥락은 임의적으로 추출되어 공간화 및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흐르고 변화하는 유동적인 것이기 때

문이다.

맥락주의를 해석하는 작가들 또한 어떤 개념적인 통일을 보이기보다는 각기 다른 방향과 목적을 향해 그들의 이론을 전개시킴으로 그들의 일반성을 찾기는 어렵다.³⁾ 따라서 건축적 맥락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서 결과물들의 구체적 나열보다는 그것들을 도출하기 위한 맥락적 접근방법에 대한 고찰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표2>와 같은 방법으로 종합 분류를 하여 건축에서의 일반적인 맥락적 특성을 도출하여 분석의 기준으로 삼는다.

2-3-1. 프로그램적 측면

밀도가 높아진 현대 도시에는 기존의 실외 공간이 건축물 내부로 들어오는 등의 실내외 구분이 불명확 해지고 있다. 기존의 건축물 용도 외에도 길, 광장, 다리 등의 도시적 프로그램은 건축 공간 안으로 수용되어졌으며 근래에 이르러서는 프로그램의 전환 속도가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단순히 편리함에 대한 도식적 구조 내지 조형적인 형태로 한정되는 개념적인 내용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

[표 2] 맥락적 접근방법의 분류

제목	내용	분류	종합	
도시건축의 콘텍스트에 관한 연구, 김한준, 1995	원형적 형태 / 유형학적 접근 / 플라주	시각적 측면	프로그램적 측면	
맥락성 증대를 위한 Fitting 이론의 고찰과 적용에 관한 연구, 조유경, 1998	외형적 유사 / Vernacularity / 이미지의 인용	시각적 측면		
도시적 맥락을 적용한 문화인큐베이터 계획안, 우광진, 1995	프로그램적 측면 / 시각적 측면 / 경계적 측면	프로그램적 측면 시각적 측면 경계적 측면		
건축적 중재를 적용한 맥락적 설계 방법, 강현주, 2002	지형의 형태 / 기능(프로그램) / 인간행위	시각적 측면 프로그램적 측면		시각적 측면
도시 랜드스케이프의 연속성 개념을 통한 건축디자인 접근, 윤종호, 2002	프로그램적 측면 / 형태적 측면, 공간 및 경계적 측면 / 재료적 측면	프로그램적 측면 시각적 측면 경계적 측면		경계적 측면
건축표면이 형성하는 장소성에 대한 연구, 최정석, 2004	동화 / 이식 / 도입	시각적 측면 프로그램적 측면		

라, 시대상의 요구나 생활방식, 그리고 작가의 관점으로 새롭게 표현하는 일종의 맥락적 산물로서의 프로그램이 확산되고 있다.

건축에서 맥락의 경험은 시각적 재현에 의해 우

2) 우광진. (2003). 도시적 맥락을 적용한 문화 인큐베이터 계획안. (pp 9). 홍대석론.

3) 김한준. (1995). 도시건축의 콘텍스트에 대한 연구. (pp 84). 수원대석론.

리와 분리된 채, 단지 외부적 기호체로 전달되기 보다는 공간적 구조로 프로그램화되어 인간의 체험과 함께 상호간 섞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야 할 것이고, 이 경험이 단일 체제 내에서만 수용될 것이 아니라 공간을 포함한 주변 환경 전체와 지속적인 연계가 이루어져야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로써 프로그램간의 이질적 요소의 복합적인 혼재와 난립 보다는 서로간의 연속성을 형성하고 주변 환경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들 간에 관계성을 조작하거나 기존 장소의 요소가 아닌, 새로 도입되는 요소와 함께 새로운 맥락이 형성될 수 있다.

2-3-2. 시각적 측면

시각적 효과⁴⁾를 통한 공간의 맥락을 이루는 요소들은 주변 환경의 직접적인 반영, 장소의 특성을 이루는 요소들의 변형된 이식, 다른 매체를 통한 기억 등 다양하다. 그리고 이 요소들의 특성은 과거의 기억을 담고 있는 것에서부터 현재의 것, 그리고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층위의 것까지 포함된다.

이처럼 다양한 시각적 요소로 형성되는 맥락의 조작방식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공간이 도시에서 시각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맥락을 형성하는 것이다. 주변 환경과의 시각적 조화란, 원만하면서도 창의성이 약한 해결안이지만 이는 주위의 환경과의 일체화, 혹은 그 상태를 반복함으로써 건물의 물리적인 경계가 맥락에 스며들게 된다. 이로 인해 시각적 조화와 공감이 되는 관계를 설정하게 됨은 그 공간이 도시적 맥락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공간의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시각적 요소의 도입에 있어서 어떤 원형으로부터 이미지를 유추, 해석하고 이를 통해 변형된 형태를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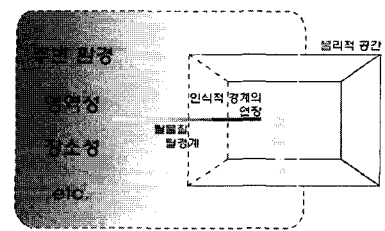
이러한 개념에는 독자성과 반복성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원형이 지닌 반복적인 성질로 인해 그것이 모방적이라고 해석되어질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복사되지 않음으로서, 독자성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다.

2-3-3. 경계적 측면

맥락이란 것은 경계적 측면에서 각각의 관계성이 형성되는 것으로 내, 외부공간 둘 간의 접점에 대한 의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경계란 건축물의 내·외부, 각 내부 공간들 간의 경계를 의미한다.

내부 공간은 건물 자체에 의해 한정되는 것이고, 외부 또는 도시공간은 그 건물과 주변 건물에 의해 한정되며 건물은 내

[그림 1] 경계적 측면



부와 외부를 구분하며 공간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본다. 또한 내부와 외부로 한정지어진 공간은 그 물질적 제약에 있어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고 하기보다 이 제약의 과정을 통해서 내부와 외부가 의미 있게 결합되는 방식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내부와 외부의 결합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첫 번째는 대지의 재해석을 통해 작동하는 체계로서의 땅의 해석과 이의 연장으로 건축공간 내부의 연속성을 통한 외부화의 경향이고, 두 번째는 투명성에 의한 비물질화를 통해 나타나는 연속성의 개념이다. 공간 구성에서의 내·외부 공간의 관계성은 근대 이후 가속화된 재료와 기술의 발달로 투명성에 의한 것으로 설명된다. 이를 통해 현대의 건축공간의 주류는 내부와 외부의 연속성을 주제로 삼았으며 대립적이고 단절되었던 내, 외부 간의 관계는 흘러가는 듯한 공간 속에서 연속된 것으로 변화되었다. 맥락적 해석을 통한 경계의 의미는 주변 건물과의 평면적인 관계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 연속성을 형성시킨다. 여기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경계의 개념을 모호성으로 대체하여 이는 공간의 비물질화라는 개념 및 공간의 투명성에도 관련지을 수 있다.

3. 장 누벨의 공간 개념과 맥락적 특성

3-1. 공간 개념의 배경

1970년대 중반 이후의 프랑스는 경제적 불황이 두드러짐에 따라 이제 더 이상 도시적인 성장에서 비롯된 신도시의 출현이 희박해져갔다. 이에 따라 건축가들은 이전과 동일한 대상의 도시를 바라봄에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제시하였는데 이것은 보편적인 덕목을 모델로 제안하고자 한 모든 의도가 포기되었다는 사실과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도시 형태나 맥락에 대한 주목,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진 한정된 규모의 단위체가 가지는 내향성, 건축 계획의 개념에 대한 방법 등이 지형적으로 분화된 차원 속에 위치하게 된 것이다. 아주 기능적인 접근이나 추상적인 개발 계획이나 평면을 신뢰하는 것을 이제는

4) 본 연구에서의 시각적 효과란 건축의 표피를 통한 효과를 말한다. 현대 건축가들은 표면을 일종의 '매개체'로서 생각하며, 다양한 정보에 반응하고, 변화할 수 있는 중간자, 생물로 보면 피부(skin)와도 같은 것으로 생각한다.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게 되었다.⁵⁾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장 누벨 또한 조형적이거나 조각적인 구상에 만족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근대적인 계통에 머물고자 하지 않았다.

3-1-1. 외부성

외부성이란 어떤 특정한 문화를 건축적인 어휘 속으로 통합하고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그것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은 항상 외부의 영향 하에 있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무엇이 존재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장 누벨의 공간 개념 중 하나이다.

장 누벨에게 건축은 더 이상 자율적이지 못한 분야이며, 그것은 동시대의 문화를 구체적인 형태로 필사하거나 정착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다. 건축은 변환, 즉 주어진 조건들의 변형이 된 것이고, 오직 변화와 부가, 반복을 통해서만 작업을 할 수 있으며, 어떤 흔적들을 강화하고 혼돈으로부터 그것이 두드러지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건축가는 항상 투사하고 드러내기 위한 현실을 잡아내는 일에 대해 깨어있어야 하며, 그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면서 생산의 프로세스에 개입함으로써 일어날 수 있는 유형의 작업으로 보고 있다. 즉, 건축적인 물음은 건축 분야 내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고 즐기는데서 나온다고 하였다.

3-1-2. 건축의 특이성

장 누벨은 자신의 스타일을 개인적인 영역을 정의하기 위해 적합하게 만들어 놓은 어떤 특징적인 요소들을 사용함으로써 규정하려는 건축가들과는 반대의 입장이다. 그는 자신의 작업 방법에 대해 “나는 대상을 구성하는 유형론적·이데올로기적·독단적인 모든 여건들과 상반되는, 대상의 특이성이라는 개념을 옹호하고 있다.”⁶⁾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건축이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특이성이란 맥락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회적 요구에 대한 하나의 응답으로 보고 있다. 주어진 시점이나 시대의 문화적 가치에 집중하는 것 즉, 문화가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는 건축이 예술적인 조건을 그 주된 가치로서만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시적인 차원의 작업은 단지 부가적인 가치일 뿐이라고 주장 하였다. 건축은

대규모로 의견의 일치를 요하는 분야이며 다시 말해 건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허가과정을 통해서, 예산을 통해서, 기술적인 검토를 통해서, 납득시켜야만 하는 건축주의 의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은 잊어서는 안 되는 변수 즉, 건축의 특이성인 것이다.

3-1-3. 잠재적 현실성

잠재적 현실성이란 시대의 제반 상황, 특성을 포함하는 것이며, 또한 그것으로 인한 시대의 감수성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축공간은 여러 가지 현실성을 내포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건조 환경이 될 수 있으며, 사람은 그것과 교감해서 의미를 만들어 가는 것으로서 여겨질 수 있다. 잠재적 현실성을 지니는 건축공간은 풍부한 장소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다. 기존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는, 이어주는 것에서부터 주변의 새로운 환경과 호응하거나 신체의 새로운 감각, 경험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장소의 감각을 느끼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장 누벨은 현대 기술이 가지는 ‘기계의 미학’을 통해서 시대의 감수성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기계 미학의 시대와는 속도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한다. 기계 미학의 정점이 연료에 의한 ‘동력’에 따른 속도였다면, 지금은 전기에 의한 ‘빛의 속도’를 만드는 기술이 이 시대의 상징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미 광속은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이며, 따라서 현대의 기술로서 발현되는 결과물들은 그 메커니즘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것을 알고도 하지 않는다.⁸⁾ 즉, 내부의 형태, 메커니즘과 상관없이 표면에 드러나는 시각적 효과만이 중요한 것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가상적인 느낌까지 주는 기술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전기에 의한 기술은 시각적인 정보의 2차원적인 기록 매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는 우리 도시, 생활 전반을 뒤덮고 있는 주도적인 주변 환경의 이미지들이다.

3-1-4. 소결

장 누벨은 그의 건축에서 주변 환경을 망각하지 않는다. 국제주의 건축의 획일성과 빈곤성을 비판하면서 그는 건축공간에서 역사적, 도시적 문맥을 바탕으로 우리의 사고와 인식작용에 건축의 본질성을 질문하고 있다. 그의 건축공간은 유럽의 전통도시를

5) Jacques Lucan. (2006). 한지형 외 역, 프랑스 현대건축의 역사와 이론. (pp 372). 시공문화사.

6) Jean Nouvel.(1998). (pp 13). EL croquis 65/66.

7) 장 보드리아르,장 누벨. 배영달 역. (2003). 건축과 철학. (pp 113). 동문선.

8) 최정석. (2004). 건축 표면이 형성하는 장소성에 대한 연구. (pp 34). 서울대 석론.

처럼 닭은꼴을 형성하는 것과 달리, 아랍문화원이나 까르피에 재단 등에서 볼 수 있듯이 독창적인 해석으로 역사적, 도시적 문맥을 유추하여 시대의 산물을 새로운 감성과 함께 살아있는 건축언어로 나타내고자 했다. 장 누벨은 본인 스스로 맥락 건축가임을 자처하며 맥락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다.⁹⁾

첫 번째, 맥락은 역사적인 것이다. 어떤 한 개인은 자기 혼자서 자신의 시대를 바꿀 수 없다. 만약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를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반역사적인 행위인 것이다. 두 번째, 맥락은 지형적이거나 인간적인 측면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인간적인 맥락은 아주 중요하다.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작업하느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디자이너는 그들과 자신의 아이디어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들을 설득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특정한 객관적 상황을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 그런 것은 시대와 자신이 처해있는 주변 맥락으로부터 이미 주어지는 것들이다.

결국 장 누벨에게 있어 맥락은 건축 내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이해하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장 누벨의 맥락성은 모든 맥락을 고려한 어떤 것들, 즉 시대, 역사, 인류, 사람들이 만든 장소와 문화적인 맥락이다. 이처럼 맥락주의는 장 누벨이 공간에 관한 사고에 있어 가장 중요한 디자인 철학이 아닐 수 없다.

3-2. 맥락적 표현 특성

3-2-1. 위상기하학¹⁰⁾

장 누벨은 현대 도시에서의 프로그램은 더 이상 획일적인 조닝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긴밀한 연결을 갖는 데에 그 중요성이 있다고 주장하며, 서로 다른 다양한 공간들의 정확한 성격부여보다는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 간의 관계에, 공간의 다이어그램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장 누벨은 기하학적인 기능들이 아니라 다이어그램적인 기능들을 통해서 작업을 이끌어간다. 그는 기하학적인 관계들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위상기하학적인 관계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위상기하학적으로 연속적인 공간은 다른 영역들과 연계시켜주는 간헐적인 불연속점을 갖게 됨으로 인해 각 프로

그램들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개별성을 갖게 해준다. 또한 기하학적인 공간과는 대조적으로, 위상기하학적인 공간은 지금 시대의 경험, 다시 말해 기본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갖지 않는 특성을 띠는 경험을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점을 지니고 있기도 하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이어그램은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고착되지 않는다. 다이어그램적인 기능의 위상기하학은 기하학적 혹은 선형적인 기능들에 의해 점유되는 공간에 반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에 그것은 오직 특정한 상황적 조건들에 적용될 때에만 정확한 형상을 결정하게 된다. 선형적인 등식들에 대해 프로그램에 바탕을 둔 위상기하학적 조작이 갖는 장점은 그것이 등방형의 공간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공간 그 자체 내에서 생산된다는 점이다. 즉 국지적인 공간이 고립된 단편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분화된 이형(Differential)과 그 환경들에 의해 정의되는 공간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위상기하학의 특성은 프랑스 국립 연구소(1989)에서 시도 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적인 부분은 프로그램의 서로 다른 기능을 묶어 놓은 단위들을 보여주는 다이어그램을 직접적으로 불투명으로 표현하고 있다.¹¹⁾

분할되어있는 실제들로서 건물 내의 공간들에 의해 정확한 통제를 실현하는 대신에 근접성, 분할성 또는 방향성이라는 관계들을 결정하는 위상기하학적인 연속체로서 지어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주어진 환경과의 맥락이 아닌 공간에 새롭게 주어진 기능 즉, 프로그램들의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연결하여 프로그램들 간에 관계성을 가진 맥락을 형성하였다.

3-2-2. 표피의 물결성

장 누벨의 건축은 시각적으로 번쩍거리는 금속성의 재료, 유리를 자주 사용한다. 그래서 흔히 재료의 표층적인 표현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그는 자신의 건축이 가지는 표피의 힘을 통해서 현대 도시에서의 외부성을 받아들이고 표현한다.¹²⁾ 공간적인 특질은 더 이상 그것이 예전에 그러했던 만큼 중요하지 않다. 건축 형태 자체가 의미 생성체라면, 건축의 표피는 맥락을 만들 수 있는 요소의 전달체라고 할 수 있다. 건축의 본질이

9) Space, Jean Nouvel. (2001). 空間社. 36권, 3호.

10) 위상기하학(位相幾何學, topology)의 사전적 의미는 공간의 일 대 일, 연속 그리고 그 역도 연속인 사상에 대하여도 불변인 성질, 즉 위상적 성질을 연구하는 기하학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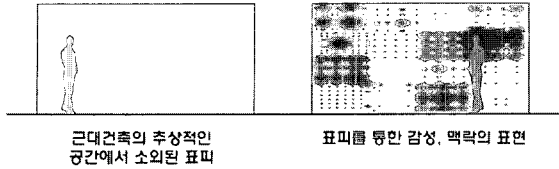
공간에서의 위상기하학은 기본적으로는 척도나 계측의 단위를 갖지 않는 기하학이다. 그것은 높은 수준의 가변적인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구조를 만들고자할 때 유용한 종류의 기하학이다.

11) Jean Nouvel.(1998). (pp 51). EL croquis 65/66.

12) 최정석. (2004). 건축 표면이 형성하는 장소성에 대한 연구. (pp 60). 서울대 석론.

공간을 다루는 것이라고는 해도, 재료, 질감으로부터 오는 특성, 또는 표피의 중요성 등이 점점 더 중요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그림 2] 표피의 물질성



장 누벨은 적극적으로 대지를 바라보고, 주변 환경의 색채 재구성을 통해 표피를 구성하거나, 주변 건물들과는 다른 재료나 표현 방식을 통해 독자적인 개성을 가지면서도 장소와 어울리도록 색채를 표현하였다. 건축의 표현 방법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고 변화하는 표피의 색채 효과, 더 나아가 외피 형태의 틀을 벗어나 색채가 독자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인식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건물의 표면위에 어떤 특정한 기호들을 서로 연결 지음으로써, 중첩되어 있는 서로 다른 공간들에 특성을 부여하는 기법으로서 종종 사용하기도 하며, 기존의 어떤 원형에서 이미지를 유추, 즉 이미지를 차용하여 그 나름대로 해석하고 이를 통해 변형된 형태를 적용한다.

이처럼 이미지와 재료, 그 자체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외부에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장식적이면서도 혼성적인 재료의 속성을 인지의 조작을 통해 제어함으로써 표피와 내·외부의 상호 관계성을 중요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재료는 단순히 그 물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상황의 한 세트로서 고려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이며, 재료는 물질과 상황 사이의 관계와 동등한 것일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주변 환경적 특징들은 재료의 이러한 개념에 포함 될 수 있다.

이러한 표피의 물질적 특성은 프랑스 아랍문화원(1981)에서 시도 된 것을 볼 수 있다. 아랍문화원의 목적은 아랍의 문화를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19개국의 아랍국들과 프랑스간의 밀접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고자 계획되었다. 남쪽의 파사드는 두 세계의 통합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알함브라 궁전의 장식적 모티브로부터 착안된 아라베스크 문양을 카메라의 조리개와 매우 흡사한 움직이는 조리개라는 현대적인 형태로 재해석한 것이다.

이 공간이 전통과 현대라는 이중적 의미를 잘 표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재료와 기술적 측면에서는 현대건축의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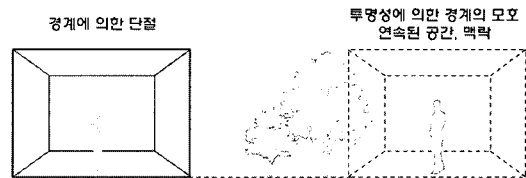
랍문화라는 상징적 의미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¹³⁾ 최첨단 기술을 사용하면서도 유리 커튼 월 속에서 내부 구조가 그대로 드러나는 전형적인 하이테크 건물의 모습이 아니라, 상징을 나타내는 건물의 외피 속에서 구조는 숨겨져 표현되고 있다.

3-2-3. 투명성

투명성을 논의할 때 대개 투명한 물성을 지닌 재료를 유리에만 한정시켜 단순한 시각현상에 의한 물리적 성질만을 논의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장 누벨은 그가 흔히 사용하는 유리의 개념을 미스 반 데 로에의 절대적인 투명성과 구별하는데, 그는 유리는 이미지를 투사할 수 있고, 서로 다른 반사의 정도나 불투명성 또는 투명성을 가지고 작업 할 수 있는 재료로서 완전히 투명한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생산해 내는 뉘앙스의 총량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는 장 누벨에게 복잡하게 뒤얽혀 있는 형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건물의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해주며, 공간을 프로그래밍하는 방법으로 빛을 통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루 사이에도 공간이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등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그림 3] 투명성에 의한 경계의 모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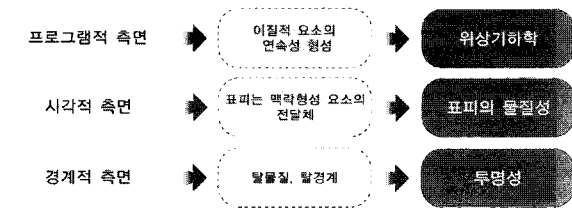


우리가 지닌 투명성은 도시와 사회로의 적극적인 소통을 이끌어 내면서 기후, 날씨, 빛에 끊임 없이 반응함으로써 공간의 절대정과 영원성을 부정한다. 변화하는 투명공간은 물질화된 공간에 비교해서 더 풍부한 감정을 가지며, 시간을 공간화 시킬 수 있게 한다. 또한 투명성에 의한 표현은 외부에서 내부로 다시 내부에서 외부로 시선이 교차하면서 내외부 공간의 개념이 끊임없이 서로 뒤섞이면서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든다. 시각적인 투명성에 의해 공간 내부에 외부의 광경을 관입시키면서 외부공간은 내부공간의 배경으로 작용하며, 야간에는 역으로 내부 공간의 외부로의 침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된다.

가르띠에 파운데이션은 그 지역적인 장소의 문화성을 보존하기 위해 물질감을 최소화하는 재료를 이용하여 공간을 구성하고 있다. 내부와 외부공간을

13) 김민지. (2001). 건축공간 비물질화의 개념과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pp 65). 중앙대 석론.

[그림 4] 맥락주의와 장 누벨과의 관계성



구분	투명성	
작품 이미지		
작품명	까르띠에 파운데이션, 1994	리치몬드 본사 계획안, 2001
작품 분석	-지역적인 장소의 문화성을 보존하기 위해 물질감을 최소화하는 재료 이용. -투명성으로 인해 경계가 모호하게 흐려져 맥락을 형성하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	-호수와 자연경관으로 둘러싸인 사이트의 특성을 투명성으로 반영. -주변 환경의 변화는 유리의 물성과 반응해서 건물 전체가 풍경에 융해됨으로써 공간과 장소간의 자연스러운 맥락 형성.

구성하는 요소로서 유리된 거대한 스크린은 2차의 강철로 고정되어 있으며 아주 얇아서 물질적인 존재감이 거의 없다. 건물의 볼륨 바깥으로 연장된 두 유리벽과 전면에 추가되어 독립적으로 서 있는 유리벽은, 근대적인 공간에서의 구조에서 분화된 볼륨을 감싸는 유리상자의 피막으로써의 역할이 더욱 발전된 것이며, 단절되지 않은 연속적인 내외부 공간을 이루는 역할을 하고 있다. Raspil 대로변에서 보았을 때 판유리로 된 스크린은 투명성으로 인해 경계가 모호하게 흐려져 맥락을 형성하는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하고, 지극히 평범해보이게 된다. 또한 유리벽의 역할에 의하여 건물은 실제보다 확장되어 보이며 내부와 외부의 공간의 경계는 모호하게 지각되고 있다.

3-3. 소결

장 누벨의 표현 특성을 통해 결국 장 누벨의 방식으로 풀어낸 그만의 독특한 맥락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맥락주의와의 관계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위상기하학을 통하여 프로그램간의 이질적 요소의 복합적인 혼재와 난립보다는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들 간에 관계성을 가진 맥락적 공간을 형성한다. 둘째, 표피를 통해서 외부성을 받아들이고 시각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거나 공간의 아이덴티티 구축을 위한 시각적 요소를 유추, 재해석하여 맥락을 형성한다. 셋째, 투명성에 의한 표현은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지우며, 동시에 외

부의 환경을 받아들인다. 또한 맥락적 해석을 통한 경계의 의미는 주변 건물과의 평면적인 관계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그 연속성을 형성시킨다.

4. 작품 사례 분석

본 단락에서는 장 누벨의 작품에 나타난 맥락적 표현 특성을 사례를 들어 연구해보고자 한다. 분석은 장 누벨의 계획안 및 실현화된 작품을 선정하여 앞서 연구된 장 누벨 작품 공간의 맥락적 특성을 분석 기준으로 하여 그의 작품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분	위상기하학	
작품 이미지		
작품명	프랑스 국립 연구소, 1985	독일 라이프치히 백화점, 1991
작품 분석	-근접성, 분할 또는 방향성이라는 관계들을 결정하는 위상기하학적인 연속체로 이루어진 공간. -프로그램들간의 관계성을 가진 맥락 형성.	-원추형태의 보이드된 공간이 매개공간을 형성하여 외부와의 연결과 프로그램간의 연결 (백화점과 사무 공간) 시도, 위상기하학적 연속성을 띄고 있다.

4-1. 위상기하학

이처럼 장 누벨 작품 공간에서의 위상기하학은 획일적인 조닝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들 간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개별성을 갖게 해준다.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다이어그램은 기하학적인 형상으로 고착되지 않는다. 다이어그램적인 기능의 위상기하학은 특정한 상황적 조건들에 적용될 때에만 정확한 형상을 갖는다. 이러한 조작 방식은 기존 장소의 요소가 아닌, 새로 도입되는 요소와 함께 새로운 맥락을 형성할 수 있다.

구분	표피의 물질성	
작품 이미지		
작품명	프랑스 아랍문화원, 1981	스위스 엑스포 2002
작품 분석	-재료와 기술적 측면에서는 현대건축의 어휘를 사용하면서도 아랍문화라는 상징적 의미를 표현. -과거에 대한 기억보다는 공간이 속해있는 현재 상태와 교류를 통해서 인식되는 결과로서 얻어지는 맥락.	-오랜 시간을 거쳐 곧 철거될 것 같은 느낌의 재료들을 통일되게 사용함으로써 시각적으로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 맥락을 형성.

4.2. 표피의 물질성

이와 같이 전통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부속물로서 인식되던 표피의 특성은 첨단 기술로서 표현되는 각종 이미지들과 시각적 효과를 통해 장소의 기억, 상징적 의미, 주변 환경과 시대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시, 공간성을 표현하고 있다.

4.3. 투명성

투명성으로 만들어진 공간은 자연과의 일치감, 반사로 만들지는 시각의 확장성을 갖게 된다. 비물질화를 통한 경계의 소멸 및 약화, 주변에 비치는 허상, 실상들이 겹침으로 해서 다중적이고, 혼성적인 감각의 경계를 가지게 된다.

5.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공간을 만드는 것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환경과, 그것이 그 안의 사람과의 체험을 통해서 맥락으로서 인식되는 것에 필요한 인식적인 질서의 요소들(행위요소, 장소의 기억, 경계감 등)을 만드는 것 역시 맥락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지닌 요소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장 누벨은 주어진 변수들에 입각하여 무엇이 행해질 수 있는 가를 이해하기 위해 매 경우마다 그 상황들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지역적인 맥락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시대성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장 누벨 맥락적 특성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었다.

첫째, 프랑스 국립 연구소와 라파예트 백화점에서 볼 수 있듯이 공간 내에서 발생하는 프로그램간의 이질감을 위상기하학을 통하여 프로그램들 간의 맥락성을 유지하면서도 그 개별성을 갖게 해준다.

둘째, 표피의 물질성이 가지는 시각적 효과를 맥락 형성 요소의 전달체로 반영하여 장소의 기억, 상징적 의미,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아랍 문화원과 스위스 엑스포를 통하여 볼 수 있었다.

셋째, 가르미에 파운데이션과 리치몬드 본사의 사례를 통해 투명성으로 이루어진 공간은 비물질화를 통해 경계가 모호해짐으로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변화됨으로 자연스러운 맥락이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근대 건축의 공간 실험에 대한 반성과 새로운 공간 개념의 도래와 필요성이 지금까지의 장소성 및 역사성 상실과 맞물려 '건축을 위한 공간'보다는 대중들을 위한 '의미 있는 장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주며, 이에 기존의 맥락

적 건축이 현대 사회에 통용되지 않음을 인정하고, 나름대로의 접근과 시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 누벨의 공간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의 맥락에 의해 상호연관성이 있는 유기체로서 역할을 하여야 되며, 이것은 다시 새로운 맥락을 제시하는 가능성을 만들고, 주변 환경과 괴리되어 있던 도시 환경 내에서 연계성을 찾아주며, 새로운 맥락성에 대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박혜경 외. (2003). 입지유형에 따른 맥락적 형태 표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논문집, 19권12호 통권 182호.
- 이진아 외. (2004). 현대건축에서 맥락 드러내기의 새로운 방향성 모색.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권, 8호, 통권190호.
- 유재우 외. (1999). 스테판 페퍼의 맥락주의에 비추어 본 케네스 프람톤의 비평적 지역주의.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논문집 제57집
- 김민지. (2001) 건축공간 비물질화의 개념과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중대석론.
-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국제, 2001.
- Bruno Zevi. 공간으로서의 건축. 세진사. 1997.
- Brent C. Brolin. 박두용 외 역. (1996). 맥락적 건축. 세진사.
- Jacques Lucan. 한지영 외 역. (2006). 프랑스 현대 건축의 역사와 이론. 시공문화사.
- Jean Baudrillard, Jean Nouvel. 배영달 역. (2003). 건축과 철학. 동문선.
- Jean Nouvel. EL croquis 65/66(1998), 112/113(2002)
- S. Giedion. 김경준 역. (2003). 공간 시간 건축. 시공문화사.
- Jean Nouvel Interview. Space. 空間社. 36권 3호, 2001.
- Jena Nouvel, Paul Jodard, Jennifer Hudson. (1995). The International Design Yearbook. Bijutsu Shuppan-Sha.